

내장으로부터, 캐니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앞에서 수치와 모멸, 불행으로 가득 찬 자신의 서사를 자신에게 팔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지만 오 분 뒤 그의 기대는 처참히 무너졌다. 안타깝게도 그가 소개팅으로 만났던 두 번째 여자들에게서 비슷한 래퍼토리를 들은 참이었다. 그는 자신을 만나러 온 여자들이 사이비 종교 집단의 신도거나, 같은 곳에서 훈련을 거쳐 나온 고도의 심리학자나 심리학과 대학원생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그도 아니면 보보가 자신을 골탕 먹이려 한 것은 아니었을까, 라는 추론까지 다다랐지만 보보는 그럴만한 인물이 못 된다. 적어도 그에게는 그랬다. 그는 자신이 만난 여자들은 불행한 자식이라도 팔지 않으면 결혼 시장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힘든 여자들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달랬다. 그는 자기 앞에 앉았던 여자들의 벗은 몸을 상상하며 자신과 그럴 수 있는 미래에 몇 평짜리의 아파트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상상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라떼의 스팀 우유 거품이 꺼지기도 전에 그를 등지고 나가는 두 번째 여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 번째 여자에 대해 생각했다. 보보가 주선했던 소개팅 약속은 총 세 개였으며, 그것은 그에게 조만간 모습을 비칠 여자는 마지막 여자라는 뜻이었다.

보보는 수줍음이 많은 은행장으로 그의 유일한 친구였다. 그는 초고도 비만이었으며, 늘 효과적인 다이어트 약 구매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 앞으로 찾아오는 외판원을 외면하기 힘들어하는 성격이었으며, 내놓는 것이 활발한 장운동을 촉진시키는 유산균 비타민이나, 식욕을 감소시켜주는 보조제의 경우라면 더더욱 외면할 수 없는 힘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가 그것을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는 이유는, 다른 아닌 외로운 돼지 독신 보보의 오피스텔 문을 제일 먼저 두드린 것이 그였기 때문이다. 보보는 자신의 옆을 평생 보듬어줄 여자는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자신과의 애프터를 거절한 여자들의 연락처와 개인정보를 수집해두고 있었다. 보보는 그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들을 모두 넘겨주었다. 보보는 그의 어머니 장례식에 참여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으며, 어머니 유언이 그의 결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지나치게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보보의 곁에서 풍기는 외로움의 역사와 연약함의 냄새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여자에 대해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첫 번째 여자의 이미지와, 두 번째 여자의 이미지는 이미 흐릿해졌다. 두 여자는 모두 얼굴이 분간이 가지 않을뿐더러, 입고 있는 옷이나 헤어스타일, 키와 눈매가 비슷했던 것 같다고 생각했다. 만일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두 여자를 마주치게 된다면, 그는 스스로가 어떤 길을 걸었

는지 의심할 것만 같았다. 왜인지 그러한 여자 부류를 잘 알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자신이 원하는 다이어트 보조제에 흥미를 가지다가, 살 것처럼 연락을 주고받곤 하다가 말미에는 슬쩍 고민해볼게요, 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거래를 파기시키는 부류였다. 그런 여자들은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어 상사에게 폭언을 듣게 만든다. 그는 이미 질릴 대로 질려 있었고 지쳐있었다.

카페 안은 지나친 냉방으로 인해 한기가 느껴질 지경이었다. 그는 진녹색 재킷의 매무새를 다시 한 번 가다듬고, 시간을 한 번 확인했다. 십 분이라면 담배 하나 정도의 여유는 있을 것이다. 보보에게서 부재중 연락이 와있었다. 급하게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입술에 담배꽂초를 끼우고 무슨 일이 있냐는 메시지를 보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깥에서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커피를 마시던 사람들은 제각기 놀라 창밖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가 앉아 있던 구석 자리 그 맞은편에는 한 여자가 앉아있었다.

저는 캐니라고 해요.

외국 분인가 봐요. 아니면 교포?

아뇨, 그냥 모두 저를 그렇게 불러요. 제가 이렇게 불러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캐니가 되어버렸어요.

아하, 캐니.

그 여자는 자신을 캐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보가 보내준 신상 속에 캐니라는 이름이 있었는지 확인하고픈 충동을 느꼈지만 캐니는 그를 지나치게 뚫어져라 보고 있었기에 그럴 틈은 생기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꼼꼼히 관찰했다. 앞서 만난 두 여자들과 캐니는 확연히 다른 느낌을 주고 있었다. 캐니는 결혼이 급해서 나온 것 같아 보이진 않았다. 캐니의 얼굴은 상당히 앳되어보였다. 열은 갈색의 눈썹은 양쪽의 길이가 달랐으며, 왼쪽 눈꼬리가 더 아래로 처진 인상이었다. 얇팍해 보이는 입매는 금방이라도 냉소를 뱉어낼 것 같았다. 다음으로 그는 여자의 몸을 훑었다. 싸구려 태가 나는 검은 가죽 재킷에, 브랜드를 알 수 없는 진을 입고 있었다. 소개팅에 맨다리를 사수하려 하는 여자는 어딘가 독특한 태가 있는 것 같지 않느냐? 웬지 커피 값을 본인이 낸다고 할 것만 같아. 그리고 내 연락을 차단하거나, 그런 식으로 사라질 거야. 언젠가 보보는 그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 말에서는 보보의 두려움이 느껴졌다. 그것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과연 그는 캐니를 보고 있으면,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게 만드는 태가 있다고 느꼈다. 그녀의 피부는 조금 투명한데가 있었고, 그의 집요한 시선을 끊기라도 하듯 얼굴 중간에는 점이 박혀 있었다. 캐니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표정 없는 얼굴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이어지는 침묵에 결국 먼저 말을 꺼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저는 아르바이트만 하고 지내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아르바이트. 그걸 완료하면 그 다음 아르바이트. 이런 식으로 진행해요. 하루에 총 세

번 반복해요.

파트타임으로 하루가 딱 채워져 있나 보네요.

그는 멋쩍어하며 말을 골랐다. 그는 웬지 실용성 있는 말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보보는 대체 이 캐니라는 여자를 어떻게 만났던 것일까. 캐니는 그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

그쪽은 어떤 일을 하세요?

캐니는 잔을 내려두며 말했다. 웅졸한 입술이 달싹이고 있었다. 밖에서는 천둥이 쳤다. 캐니는 창밖을 훑듯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꼭 이런 날을 조심해야 하는데.

외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산하의...그냥 별 일 아니에요. 대단한 직업도 아닙니다.

파트타임과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이 집에 갔다가, 저 집에 갔다가, 그 다음 집에 갔다가, 다음 행선지가 정해져 있는 일이에요. 저도 그 일을 해봐서 알아요.

캐니의 말은 웬지 그를 묘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허벅지에 양손을 비비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당연히 파트타임이겠죠?

캐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캐니 얼굴에 스친 찰나의 희미한 미소를 보았다.

그 일을 할 때 참 고되죠? 물건을 살 듯 말 듯 구는 그 태도는 어딘가 신경 쓰이는 데가 있죠?

그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캐니가 자신과 저녁을 먹을 것만 같다는 착각이 들었다.

그 태도는 속에서 불만을 피어오르게 해요. 그렇죠? 그 일은 제가 가장 빨리 그만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내일은 그만두려고 해요.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건 너무 지루해서요. 모레부터는 또 다시 세 가지의 일을 구할 생각이에요.

캐니는 여전히 그에게서 아주 조금의 시선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카페는 점점 더 추워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지만 그의 느낌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다. 캐니는 거대한 냉동 고기 창고 같았다.

모레부터 바빠지겠네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 불만이 생기는 것도 맞아요. 진짜 불만이에요.

비가 참 많이 내려요.

캐니의 말에 그는 빗소리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빗소리는 어딘가 석연찮은 곳이 있었다. 시원하게 쏟아 내리는 것이 아닌, 누군가 카페 위에서 양동이로 물을 퍼다 버리고 있는 듯 툭툭 끊겼다.

비 오는 날을 좋아해요?

나쁘지 않아요. 관측 일을 할 때는 비가 오면 아주 곤란했거든요. 물에 빠진 생쥐 꼴을 하고서 문을 두드리면 대체 누가 문을 열어주겠어요? 차가운 얼굴로

문을 닫고 말죠. 그리고 하는 핑계란 늘 똑같아요.

조금만 더 생각해볼게요. 고민해볼게요, 괜찮습니다. 이런 말이요?

바로 그거예요.

그는 갑자기 캐니에 대한 환희가 차오르는 것 같았다. 그는 마치 끌려가듯, 자신도 모르는 새 아주 빠르게 캐니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다. 캐니의 몸짓에 동요되고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비는 더 이상 소나기라고고는 전혀 이름 붙일 수 없는 규모였다. 카페의 한기는 여전했다. 그러나 캐니는 어떤 한기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보온이 잘 되는 자켓 같진 않은데, 그는 중얼거렸다. 어쩌면 내가 모르는 브랜드의 좋은 자켓일 수도 있지. 아주 비싸다거나. 그런데 아주 비싼 것을 걸칠만한 나이로는 보이지 않는 데, 그럴만한 돈이 있어보이지도 않고. 그는 캐니가 몸을 살짝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바로 재킷을 벗어 캐니에게 건넸다.

고맙습니다. 정말 다정하신 분이네요. 감동 받았어요.

아닙니다. 이런 거 가지고 감동 받으면 안 되죠.

아니예요. 저 말고 다른 여자 분들에게도 이렇게 해주셨겠죠?

그는 자신이 한 번도 여자를 사귀어본 적 없다는 사실을 함구한다. 갑자기 그는 조금 난처한 기분이 되어 탄성을 피우며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다.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캐니 씨는요.

저는 스물 셋이요.

스물 셋이요?

그는 캐니를 쳐다보았다. 캐니는 정말 앳되어 보이기는 했지만, 스물셋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던 이유였다. 캐니의 말을 듣고 그는 다시 그녀의 얼굴을 뜯어보기 시작했다. 젖살이 빠지지 않았고, 교정하지 않은 듯한 덧니가 어렴풋이 보이는 것도 같았다. 아마도 덧니를 교정할 돈이 없었던 탓일 거라고 생각했다.

네. 표정을 보아하니 의외이신가 봐요.

자신을 열심히 보는 듯한 캐니의 말에 오묘한 기분을 느끼며 그는 대답했다. 스물셋이라면, 적어도 저와 열 살 이상은 차이가 나시는데요.

아무렴 어때요? 마음이 맞으면 되는 거죠.

생각보다 위험한 여자일지도 모른다. 너무 어린 여자는 피곤할지도 모른다... 캐니라는 여자가 보보와 소개팅을 했다고? 그는 캐니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다. 캐니라는 여자가 마지막 여자가 맞긴 한 것일까. 그는 환희하는 동시에 주저하고 있었다.

그렇담, 보보를 언제 만나게 된 건가요?

보보요? 아, 황보씨를 말하는 거군요.

아, 그렇죠. 황보를 말하는 거죠.

어디까지 보보는 그가 붙인 별명이었을 뿐이었다. 그는 그 사실을 다시 상기하며 캐니의 표정을 살폈다.

그분과는 작년에 만났어요.

작년이라면, 캐니 씨가 스물두 살일 때겠네요.

네. 그분은 매우 친절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생각 마세요. 그분은 그저 제 이상 형이 아니었지만, 이성적 감정을 빼고 보면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식사도 사주시고, 인형을 선물해주시기도 했어요. 아직도 제 머리맡에 있습니다.

확실히 어린 여자는 어리다. 그는 당연한 생각을 곱씹고 있었다. 캐니는 보보에 대해 회상하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캐니가 말은 일리가 있었다. 모든 여자는 똥똥한 보보를 싫어한다. 보보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여자로 태어났다면, 자신의 소개팅 상대로 보보가 걸어 나왔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허탈했을까. 주선자를 있는 힘껏 욕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부유한 지점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다시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오직 값비싸고 근사한 식사를 위해 그를 한 두 번은 더 불러낼 용의가 생겼을지도 모른다.

그래요? 보보와는 어떻게 만났나요?

음, 길게 말할 것은 없어요.

아, 말하기 싫으면 꼭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례였을까요?

그는 완전히 캐니에게 맞추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가진 캐니에 대한 강렬한 신비함과 호감이 뒤섞여 나온 결과였다.

아니요. 아, 길지 않다는 말이었어요. 조금 귀여우신 구석이 있으시네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 황보씨가 놀러 오셨어요, 저는 술집에서 안주를 서빙하고 있었고, 황보씨는 다짜 테이블에 일행과 앉아계셨죠. 계산을 마치며 황보씨가 연락처를 여쭙보셨어요. 그분의 호감에 민폐가 되기 싫어서 연락처를 드렸죠. 이후로 한두 번 만나본 것이 다였어요.

술집, 바 테이블이라면, 혹시 거기, 인사동입니까?

어머. 맞아요. 인사동 쪽에 있는 전통주 가게죠. 지역 막걸리와 과전을 주로 파는...

그는 또다시 캐니를 보며 놀라고 말았다. 자신의 기억이 맞다면, 그와 보보가 함께 찾은 인사동의 술집에서 캐니가 서빙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작년 겨울, 그와 보보는 종로 3가에서 만나 고급 생선회와 맥주를 마셨고, 기분 좋게 취해 인사동으로 향했다. 그는 고급 회가 주는 신선함에 놀랄 정도로 과식하고 말았다. 그리고 완전히 지쳐있었다. 그러나 그는 취한 보보가 저녁과 술을 사겠다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의 쪼들리는 월급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다양한 음식의 세계를 알고 있는 미식가 보보를 따라다니는 것은 그의 기쁨 중 하나였다. 물론 그만큼 각오도 해야 했다. 보보와 함께 다니면, 익선동을 배회하는 중년의 게이로 오해받을지언정 여자는 절대 다가오지 않았다. 오히려 보보를 반쯤 지탱해서 걷는 그들에게서 나는 오래된 악취를 피하는 여자들만이 있었을 뿐이다. 그와 보보는 마치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처럼 골목을 배회하다 고급스러운 지하 입구로 들어갔다. 그러한 날에 캐니를 만났던 것이었다. 아주 우연히. 그리고 지금 그 여자가 그의 앞에 앉아있었다.

아무튼, 그 가게가 맞으실 것 같아요. 저도 황보 씨의 옆에 누군가 계셨다고 쪽 생각하고 있어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키는 중간 정도에, 마른 인상을 주는 분이셨거든요.

캐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미소지었다. 웃을 때 그녀의 점은 쏘아져 내릴 것처럼 일그러졌다. 싱그러운 웃음이라고 생각했다.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무언가 생각난 듯 캐니는 그의 재킷을 벗어 그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카페 안은 여전한 한기가 감돌고 있었고, 사람은 그들 뿐이었다. 밖은 계속해서 천둥이 치고 있었다. 세찬 비가 쏟아져 내려서인지, 헤드라이트를 키고 도로를 달리는 몇 안 되는 차를 제외하곤 사람도 없었다.

우리가 너무 크게 얘기한건 아니었겠죠?

그는 주위를 살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흘러나오던 음악은 꺼져 있었고 그 공백은 그들의 대화, 빗소리가 짝 메우고 있었다. 시큰둥한 표정의 아르바이트생은 주방에 들어간 것인지 보이지 않았다.

음, 괜찮았을 것 같네요. 우선, 사람도 없고... 나갈까요?

캐니는 문 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좋습니다. 이제 출출해요. 캐니 씨도 그렇죠?

캐니와의 저녁 식사는 만족스러웠다. 그러나 그가 캐니에 대해 더 알게 된 것은 많지 않았다. 그녀는 묘하게 방어적이면서도 친절했다. 그는 식사하는 내내 이것이 캐니가 자신에게 보내고 있는 무언의 신호는 아닌지 의심하며 끊임 없는 탐색전을 시도했다. 그는 캐니는 어른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어린 여자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결론지었다.

캐니 씨는 어디에 살죠?

저는, 음, 자주 옮겨 다니긴 하는데...

이사가 잦나 보군요.

네. 그래요. 지금은 이문동 근처에 살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문동이라면, 그는 자신이 살던 목포에서 떠나와 서울에서 처음으로 집을 구한 장소이기도 했다.

요즘은 어떤가요?

이문동이요? 그런대로 쓸쓸하고 그런대로 살만한걸요.

내가 이문동에 살 때는 더 쓸쓸했을 거예요. 내 방 창문을 바로 열어젖히는 순간.

철길 위로 기차가 달리죠.

캐니가 그의 말을 받아치듯 말했다.

철길은 아는군요!

철길을 알다마다요!

예전에 술 취한 내 선배가 그 길에 서 있다가 바보같이 죽었지 뭐예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 일들도 종종 있는 법이죠.

캐니 씨, 많이 드시죠.

딱딱한 접시 위로는 캐니 몫의 스테이크가 그대로 있었다. 그는 열심히 자기 몫의 고기를 썰어 먹고 있었고, 배어 나오는 핏물까지 남기지 않고 게걸스레 혀 위에 올려 음미하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귀가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채식을 하시는지요?

채식이요? 아뇨. 배가 고프지 않아요.

보통의 인간들과 다르시군요.

보통의 인간이 뭘까요. 스테이크를 잘게 썰어 먹는 것? 참 스테이크를 곱게 잘 썰어 드시는 것 같아요.

그 순간 그는 아, 하고 자신이 캐니에게 지나치게 무관심한 것으로 보인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무릇 여자 경험이 많은 남자라면, 병신같이 앉아서 자기 스테이크에 집중해 썰어 쳐먹고 있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허겁지겁 캐니의 접시를 끌어와 썰기 시작했다.

아.

벌린 캐니의 빨간 입 속, 덜 익은 고기처럼 보들보들하고 여린 혀 위에 마침내 그가 썰어낸 스테이크 한 점이 들어가는 순간, 그는 또다시 공기가 일순간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한기를 넘어 오한을 느꼈다.

저기요, 뭘고 계세요?

캐니를 집으로 데려다준 후 그는 자신의 집 쪽으로 몸을 틀었다. 캐니는 그에게 전화번호를 주었다. 그는 기쁨에 겨운 상태였다. 열두 살 연하의, 어리고 현명한 여자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이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캐니와의 일을 떠벌리고 싶어 보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보보는 여전히 부재였다. 그는 작은 불만이 피어올랐지만, 오늘 캐니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보보 덕분이었기에 이런 마음을 가라앉히자고 다짐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캐니에게 문자가 와있었다. 오늘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새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나면 연락드릴게요. 좋은 꿈 꾸세요! 그는 느낌표에 한참이나 빠져 작은 화면을 오래도록 들여다봤다.

폭우가 쏟아졌다. 일기 예보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었다. 그는 방문하기로 한 집들의 리스트를 보며 아파트 몇 동을 리스트에서 삭제했다. 비 때문에 도로로는 막혀있을 테고, 시내 나는 대중교통을 타자니 그는 각종 팸플릿과 약통이 든 가방의 무게가 부담스러웠다. 그는 한 손으로는 우산을 들고, 겨드랑이에는 체크리스트를 끼고, 전혀 노련하지 못한 걸음으로 걸어야 할 것이 뻔했다. 그 뿐인가? 그가 팔아치워야 할 각종 영양제가 연신 보조 가방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는 연신 씨발거리며 볼품없는 걸음새로 가장 먼저 방문해야 할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그는 공동 현관 앞에서 바쁜 척을 하며 정리하는 척을 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추리닝 차림의 여자가 작은 폭탄 같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급히 들어왔다. 그녀는 후드 모자를 깊숙이 뒤집어써 비를 피하려 한 모양이었다. 연한 핑크색 세트를 입은 그녀는 거대한 햄처럼 보였다. 재빠른 손놀림으로 비밀 번호를 입력하는 바람에 그는 네 자리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아쉬움에 욕을 중얼거리며 여자의 뒤를 따랐다. 그가 가장 위층을 누르자 그제야 여자는 누군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어머, 놀래라.

여자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허스키했다. 여자는 18층 버튼을 눌렀다.

비를 맞으니 비린내가 나지.

여자는 분명히 그렇게 중얼거리며 내렸다. 그는 30층에 내려 3001호의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했다. 그는 귀를 현관문에 바짝 붙였다. 그는 리스트에 엑스를 치고 몸을 돌려 3002호의 초인종을 눌렀다. 2901호, 2902호, 2801호까지 모두 허탕이었다. 집 안엔 분명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은 나오지 않았다. 그들은 인터폰을 확인한 뒤, 거지꼴을 면하지 못한 사기꾼 행색을 한 외판원을 보고는, 혀를 차거나 욕을 하며 모른 체 했을 것이었다. 그는 마음이 초조하게 됐다. 늘 비만 오면 이런 식이었다. 문득 그는 보보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캐니에 관한 무용담을 지껄이면 그는 어떻게 반응할까. 애써 축하해주는 그의 목소리, 지방이 가득 낀, 느릿하면서도 쾌배감에 가득 찬 마음을 숨길 수 없는 열등한 등급의 목소리. 그는 회사에서 폭발할 듯 화가 나거나, 이리저리 구르고 짓밟힌 후에는 늘 보보의 목소리로 위안받곤 했다. 보보는 그를 달래주는 형식적인 언어의 천재였다. 그는 보보에게 메시지를 더 보냈다. 대체 어디냐, 왜 연락을 받지 않냐는 등의 말이었다. 죽기야 했겠나.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겨우 2401호에 다다라 환영받을 수 있었다. 환영이라고 하기엔 어폐가 있었으나 그가 겨우 문틈으로 머리통까지는 디밀 수 있었던 얘기였다. 그러나 축제는 3분 만에 끝나고 말았다. 문을 열어준 것은 늙은 여자였는데, 남편의 소변줄을 갈아줘야 한다며 그의 설명을 듣다가 황급히 사라졌다. 그는 달히려는 문틈을 붙들고 사모님, 잠시 있다가 얘기하시죠! 라고 소리쳤지만, 늙은 여자는 집 안으로 사라졌다. 남자의 비명이 들려오고, 어머니, 어머니, 어떡해, 하는 여자의 황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얼마 있다가 늙은 여자가 한 손에 검은 봉지를 들고나왔다. 그것은 뜨끈한 내장과 물컹한 순대였다.

그가 되물을 새도 없이 문은 순식간에 닫혔다. 그는 자신을 구걸을 하는 사람으로 착각해서 준 것인지, 아니면 비 오는 날 남의 집 문이나 두드리며 가짜 영양제를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을 동정해서 준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너무나 뜨끈하고 물컹대는, 잡내 나는 그 물체를 들고 있는 자기 자신이 가장 혐오스러웠다. 차라리 문전박대가 더 나았을 것이었다. 그는 어떤 생각이 나, 계단을 걸어 내려가다 봉지를 던져 발로 마구 밟았다. 그것은 안에서 불쾌하게 으깨지고 가냘픈 생명이 죽듯 익익대는 소리가 났다. 그는 싸구려 구둣발로 그것을 오래오래 으깨고 있다 1801호와 1802호의 초인종을 패스하고, 각각의 문

앞에 절반씩 덜어 정성스레 버리고 나왔다. 자신을 욕한 그 여자가 구역질하거나, 아니면 문이 열리고 성급하게 뛰어나온 멍청한 개가 소금까지 뿌린 순대를 먹고 천천히 고통스러워하길 바랐다.

그날은 완전한 실패였다. 캐니나 보보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 캐니는 일자리를 구했을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팀장의 폭언에 변명거리를 찾느라 캐니는 금방 사라졌다. 그는 비가 내려 생각보다 많은 집을 방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년 치의 영양제 계약이나, 하다못해 체험관 영양제라도 받겠다는 사람도 없었기에 팀장은 길길이 날뛰고 있었다. 그는 손톱을 잘근잘근 뜯으며 퇴근했다. 그는 자신이 밝힌 내장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퇴근길에는 바람도 미친 듯이 불어와 그의 시야를 방해했다. 우산을 펼 수도 없었다. 결국 그는 훑날리는 비를 맞으며 목정동으로 돌아왔다. 도착 하자마자 캐니에게 전화가 걸려 왔다.

그러니까, 그깟 당신이 하는 일도 결국 파트타임이다, 그 말이지?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어딘가 생글생글 대고 있을 것 같은 캐니의 얼굴이 그려졌다.

캐니 씨?

당신, 화났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당황스러워서요. 전화를 잘못 거신 것은 아니시죠? 제가 알던 캐니 씨와 다른 것 같네요.

그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다. 캐니라면 진중하고, 생각이 깊은, 자신과의 공통점이 매우 많은 여자가 아니었나. 그는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굴며 자신의 속을 굶는 듯한 캐니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당신, 여자 사귀어본 적 없지? 사실은 다 티가 나. 아, 정말 내가 언젠가 말하려 했는데, 웃음을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당신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다 보여. 정말 웃기다고. 당신은 진짜 웃겨.

그만! 그만하세요. 진정하시라고요.

그의 머리칼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당신은 무얼 찾고 있는거니? 난 당신이 마음에 들어.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마. 당신은 환상적이야. 환상 그 자체야. 당신은 환상이고, 순대다! 실은 누구를 아주 밟아버리고 싶지?

캐니는 여전히 발랄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그는 차가운 빗물이 지나간 몸이 싸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상하게도 캐니에게 아무런 항변을 할 수도 없었다. 이윽고 그는 당장 캐니라느, 주제넘게 까부는 미친 여자애를 이곳으로 불러 들여와 무지막지하게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는 충동과, 동시에 한 대 쳐버리고 싶다는 욕구에 완전히 잠식당하고 말았다.

캐니, 지금 당신의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네요. 지금 나도 머리가 좀 아파오는 것 같아요. 내일 다시 이야기합시다.

내일? 내일?

캐니는 핸드폰 너머로 자지러지게 웃었다.

내일. 내일. 내일. 내일이래. 내일! 당신을 사랑해. 당신은 무언가 사랑해 본 적 있어? 무언가 미워한 적은? 당신이 받은 푸대접에 대해서 생각해 봐. 분노가, 분노가 났었지? 그런 거지? 파트타임의 분노인 거지?

전화는 끊겼다. 그의 핸드폰에서는 보보에게서의 문자 알람이 와 있었다. 일이 생각보다 막대하고, 늦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다. 그는 심호흡을 시작했다. 그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좁은 방 안에 순대 냄새가 가득 찬 것 같았다.

다음 날 그는 두 배로 많은 일거리를 받았다. 이 아파트들을 돌지 못하면 너는 잘리게 될 것이다. 팀장은 그렇게 선언했다. 그는 날이 밝자마자 보보에게 전화했다. 아무래도 미친 여자 캐니에 대해서 더 알아봤어야만 했다. 캐니는 적당한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자신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 뻔했다. 그를 흠집 내는 것을 즐기며, 그가 당황하고, 여자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며, 부러 계속하여 '파트타임'로 지칭하며 그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어디로 끌어내려지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는 보보에게 화를 낼 생각이었다. 발신은 지속되다 끊어지기를 반복했다. 보보가 부러 전화를 끊고 있다는 것이었다. 제정신이면 전화를 받아라, 죽었니? 보보, 캐니라는 여자는 대체 어떤 여자인가. 나에 대해 아는 척 하는 이 미친녀는 뭐냐? 그는 아무렇게나 문자를 보내두고 보보의 사무실로 향했다.

보보가 일하는 종로 3가의 거대한 은행에는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 그곳은 일반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대출이나 과산을 해결해 주는 업무를 진행하는 곳이 아니었다. 그곳의 사람들은 거대한 은행에 걸맞게 훨씬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로비를 서성이다 경비원에게 붙잡혔다.

황보 씨를 찾으러 왔습니다. 저는 그의 친구고, 그는 지점장입니다. 나는 지점장의 친구입니다. 증거도 댈 수 있지요.

경비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으며, 그의 양어깨를 붙잡고 출구 쪽으로 안내했다.

진짜라고요! 황보! 황보! 나는 황보를 찾으러 왔습니다. 나는 정말 그의 친구입니다. 그는 친구가 나밖에 없지요. 난 며칠 전까지 그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가 핸드폰 화면을 켜는 순간, 보보에게서 문자가 왔다. 절친의 장례식장과 있어서 전화를 받는 것은 조금 그래, 나도 너도 이제 우리 서로의 앞가림은 잘 해야 하는 나이잖니? 그는 당황했다. 보보에게서 이러한 말을 듣게 되다니. 어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자신에게 악의에 가득 찬 이런 문자를 보낸단 말인가. 그는 분노에 치밀었다.

이봐요. 이봐요!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까?

경비원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로비의 모든 사람은 그를 쳐다보

고 있었다. 마치 모두가 캐니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쟈장. 그는 옥하며 경비원을 지나쳐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 그러나 그가 우려했던 바와 달리 보안 검색대에서는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다. 그는 가장 가까운 엘리베이터를 잡아타 꼭대기 층의 버튼을 연타했다.

복도에는 검은 벨벳이 깔려있었다. 조도를 낮춘 조명은 은은하게 층 전체를 비추고 있었다. 복도의 가장 끄트머리이자, 엘리베이터를 마주 보는 쪽에 여비서가 앉아 있었다.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상냥하게 웃었다.

어디서 온 누구...

난 황보를 찾으러 왔습니다. 알죠? 당신의 상사 아냐?

지점장님께서는, 현재 모친상을 당하셔서 이곳에 안 계십니다.

뭐? 내게는 그냥 장례식장에 있다고 했는걸? 아냐.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냐.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다. 캐니였다. 그는 폭발할 것 같은 상태로 캐니의 전화를 받았다.

어머, 업무 중에 제가 방해한 것은 아닌가 싶어요. 장례식장은 잘 다녀오셨어요?

무슨 개소리야? 너, 누구냐? 황보와 너는 전혀 모르는 사이지? 내가 황보를 죽인 거니? 캐니라는 이름도 가짜지? 미친년. 죽어 마땅한 년. 나를 놀려먹으니 좋더냐?

수화기 너머에는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그는 반투명한 시트지가 붙여진 유리문을 열었다. 사무실은 비어 있었다. 그는 보보의 책상을 뒤졌다. 그러나 캐니에 대한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분명히 보보가 여자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수집해 둔 파일이 있을 것이다. 보보의 책상에는 모형처럼 보이는 권총도 있었다. 반투명한 벽 너머로 횡설수설하며 어디론가 전화하는 비서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권총을 비서의 머리에 겨누었다. 비서는 바닥에 몸을 납작 붙였다. 그는 자신이 끔찍이 흥분한 것을 느꼈다. 그는 온갖 서류철들을 가지고 나와 품속에 쑤셔 넣고 보보의 집으로 가야겠다고 다짐했다. 난 살아있으니 내 걱정은 마. 너도 힘내렴. 그는 보보에게서 문자가 오자마자 전화를 걸었지만 보보는 전화를 끊고 있었다. 보보는 캐니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보보의 오피스텔 주소를 떠올리기 위해 발이 닿는 곳으로 걸었다. 그의 품속 서류철은 채 고정되지 않아 그가 걸을 때마다 훑날렸다. 길을 걷는 사람들은 흥해처럼 갈라져 그를 피했다.

그는 보보의 오피스텔 문 앞에 섰다. 문고리를 잡아당기자 저항 없이 문이 열렸다. 못 보던 여자 신발이 놓여 있었다. 보보 이 새끼가, 라고 생각하며 그가 현관으로 들어섰을 때 그는 거실에 놓인 소파를 보고 놀라고 말았다. 거대한 소파에는 모로 눈을 감고 누운 나체의 캐니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엌에서는 역한 냄새가 났다. 싱크대 속에는 검은 봉지가 있었다. 그는 토할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는 캐니에게 다가갔다. 캐니의 피부는 아주 반투명하고 아름답

다왔다.

캐니.

그가 조용히 부르자 캐니는 천천히 눈을 떴다.

드디어 와쥔군요.

이게 뭐죠? 나의 꿈속인가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아요.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부디 말해주세요.

보보는 죽지 않았고, 내가 죽이지도 않았고, 그는 잠시 어디론가 떠나 있어요. 원한다면 전화를 걸어줄게요. 그는 내 전화를 받을 거거든요. 그는 당신에게 질린 거니까요. 보보는 당신을 미워해요. 당신이 보보라면 어떻게 당신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캐니의 몸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희고 부드러운 살결,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움직이는 분홍빛 유두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신기하군. 여자들은 원래 아래 제모를 하나요? 아니면 털이 없는 여자가 더 많은가요? 실제 여자를 보는 것은 처음이라... 내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어요.

그는 캐니의 몸을 만지고 있었다. 그러자 캐니는 그의 바지를 벗겨 그의 것을 주무르더니 자신의 입속으로 집어넣었다.

아! 그만! 그만! 잠시, 잠시! 캐니!

그는 그곳이 삽시간에 얼어붙는 고통을 느꼈다. 모든 한기의 출처는 이곳이었다. 천둥이 치고, 창밖으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꼭 이런 날을 조심해야 하는데.

캐니는 그의 것을 입에 넣은 채로 중얼거리고 다시 그를 애무하기 시작했다. 그는 뒤늦게 캐니의 말을 곱씹고 있었다. 보보가 나를 질러한다. 겨우 그만 자식이?

자, 이제 넣어요. 여자 경험이 없다고 했죠? 그러나 어디에 뭘 넣으면 되는지는 알고 있는 게 맞죠? 날 실망하게 할 거예요?

아, 캐니 너무 고통스러워요.

캐니는 그의 앞에서 다리를 완전히 벌리고 있었지만, 그는 캐니가 자신을 애무하던 순간부터 스파크가 튀는 듯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관자놀이가 폭발할 것 같다고 느꼈다. 그의 것은 터져나갈 듯이 팽창해 있었지만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아픔에 그런 것을 전혀 신경 쓸 수가 없었다. 그는 그야말로 아노미 상태였다. 그는 지시에 따라 캐니의 안으로 진입했다. 캐니는 스테이크를 바라보듯 그를 보고 있었다. 그는 환각제를 먹은 듯 정신이 혼미했다. 삽입을 한 것은 그였지만 이상하게 그가 캐니의 안에 닿으면 닿을수록, 누군가가 뒤에서 자신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졌다. 그는 캐니의 안으로 부지런히 자신의 것을 구겨 넣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육체 행위는 처음이었다. 삽입을 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것이 타는 듯이 쪼어짜져 분해되는 느낌이 들었다.

살려줘, 살려줘, 캐니. 캐...캐...

그는 거대한 복층 오피스텔 창문에 비친 무언가를 보았다. 그곳에 캐니는 없었고, 열심히 허리 짓하는 자신과, 자신의 위에 완전히 올라타 그의 안에 거대한 것을 쑤셔 넣고 있는 보보의 형체가 보였다.

보보! 보보! 미안해. 미안하다고. 너무 아파.

그러나 그 커다란 형체에서 솟아난 거대한 보보의 것은 계속해서 그의 뒤를 찢고 들어오며 그를 파괴하고 있었다. 빗소리는 계속되고 있었다. 보보의 것은 그의 살덩이를 가르고 들어왔다. 그는 숨이 모자라 입을 벌리고 숨을 쉬기 위해 노력했다. 보보는 뜨거운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는 소파 끄트머리에 떨어진 모형 권총을 잡아 들었다. 그리고 권총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는 어디선가 나지막이 들려오는 철길 소리를 들었다. 어느새 그는 주저 없이 그곳에 뛰어들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었다.

내장, 순대, 내장, 캐니!

그는 그렇게 소리질렀다.

200*80, 87